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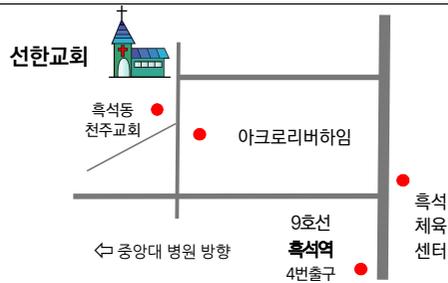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b>국 내 선교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박 희 태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b>장 로</b>	박 영 근 (집사장)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유 신 웅, 조 윤 익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조 계 승,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신년감사예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 6: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b>오 전 예 배</b>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 독 문	교독문 93번 (새해)	
찬 양 과 경 배	321장 (통일찬송가 351장)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이사야 6장 8절	
설 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b>주 요 일 후</b>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김명선 집사		
말 씬	종말론 2강 (마 24:29-31) 재림때 일어날 일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b>수 요 예 배</b>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사회자 : 김진만 전도사
	몸으로 가르치라 (잠언 31:10-31) 김진만 전도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오늘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제 직 회**        오늘 2부 예배 후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 사 무 처 리 회**   19일(주일) 2부 예배 후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 기 부 금 영 수 증**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차 안 내**       1층 현관 건너편 길가로는 한줄로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떡 제 공**         31일 송구영신예배에 구영서, 방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주 떡과 과일은 이용재, 장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1월 행사일정안내						
날짜						
1월 9일(목)-11일(토)	청소년부 수련회					
1월 18일(토)	사역자 수련회					
1월 26일(주일)	부서사역조정					
1월31(금) - 2월2일(주일)	유초등부 수련회					
2020년 성경강론 범위						
1/5	1/6	1/7	1/8	1/9	1/10	1/11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7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한해동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충만한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가정예배] 기도하지 않는 죄

찬송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통 485장)

본문 : 사무엘상 12:22~25

말씀 :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3)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즉,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범하게 되는 죄,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좋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죄란 첫째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는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등한시 여기는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여기서 ‘모든 일에’란 말은 ‘언제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공동번역)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음에도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헌금은 드릴 수 없을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선물을 사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도의 특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므로 항상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상하겠지요. 바로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말하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도바울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서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 1. 이사야의 사명
  - (1)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됨(1-4)
  - (2) 이사야는 죄를 고백했고 죄가 깨끗해짐(5-7)
  - (3)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선지자 사명에 헌신함 (8)

본론

- 2. 새해 실천사항
  - (1) 기도의 삶
  - (2) 거룩/사랑의 삶
  - (3) 선교사의 삶

결론

경건한 생활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순종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계승 장로
헌 금 위 원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오후예배 기도	김명선 집사	김미숙 권사

찬양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 / 통일 찬송가 450장)
통독	예레미야 23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 된 유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본토로 회복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거듭되는 심판의 전조 속에서도 여전히 거짓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잇달아 드러난다. 이러한 본장은 이상적인 다윗 왕가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전반부(1-8절)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는 중반부(9-32절), 그리고 당시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술하는 후반부(33-40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장은 전장에서 진술된 유다 말기의 왕들의 범죄와 그 행악의 결과에 따른 유다의 패망의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참된 왕의 등장, 곧 다윗 왕가의 재등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선지자는 가시적인 다윗 왕가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전제 한 상태에서 진정한 다윗 왕가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유다회복 약속</p> <p>(1) 1-8절: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불의한 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어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후 유다 말기의 불의한 왕들과 대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일으켜 그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심</p> <p>(2) 9-40절: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과 그들 예언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 경고(9-15),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16-22),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꿈을 꾸었다’고 제시하는 것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23-32), 가상적 대화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속이는 선지자와 제사장 및 거짓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경고함(33-40)</p> <p>(3)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건전한 신앙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p>
핵심 단어	12절. 미끄러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 545/통 344)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오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는 40킬로미터 떨어진 스텔링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꼈으나 주머니에는 편도 버스를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오어는 그날 저녁 글래스고에서 설교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스텔링으로 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필요를 채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낮은 사람이 다가와 컴노크침례교회의 오스틴 스텔링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어가 이름을 밝히자 그 목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어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스텔링 목사는 오어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오어는 그날 저녁 글래스고에서 설교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어쨌거나 당신과 한 시간은 얘기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혹시 글래스고행 버스를 그냥 묵히시면 안 될까요? 저쪽에 제 차가 있습니다. 제가 글래스고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 그 사이에 대화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구체적 지시에 신실하게 순종한 오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세요.</p>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2:1~12
묵상포인트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그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에 동참한 이들은 ‘물 떠 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만이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표적의 주체를 간과한 채 표적 자체에만 이끌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약속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최고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1~4절)
적용하기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기다리거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소서. 혼인 잔치의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
통독	예레미야 27장
본문 내용	본장은 성전 설교로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한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임박한 재앙에 관하여 선언하며 바벨론에의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다의 파멸을 예언해 왔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주변 열국과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출과 명에의 상징을 통하여 바벨론에 의한 확연한 심판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11절)와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후반부(12-22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유다말기의 세왕들</p> <p>(1) 1-30절: 유다왕가 전체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 이어 마지막 3왕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보도함. 유다 제17 왕인 살룸 곧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은 그가 이국 땅에 사로잡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유다 제18대왕 여호야김은 그가 탐람과 무죄한 피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유다 제19대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과 그의 무자(無子)로 인하여 그에게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함(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사실상 여호야긴의 왕위를 계승했다고 볼수 없음)</p> <p>(2) 유다 말기의 세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범죄한 유다 왕권과 유다 왕국의 몰락이 변경할수 없는 필연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p> <p>(3) 남들보다 많이 가진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을 것은 물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p>
핵심 단어	6절. 부리게. 짐승을 부리거나 종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가 237장 / 통일 찬송가 226장)
통독	예레미야 24장
본문 내용	본장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이 비유는 이미 앞서 진술된 '끓는 가마의 비유' (참조, 렘1:13)와 더불어서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포하였던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예레미야에게 제시된 환상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와(1-3절) 그 환상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 후반부(4-10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냄으로써 남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 특별히 이 환상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다른 환상들이 주로 유다의 현실적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지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에, 유다의 '회복'에 관한 분명한 선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징계를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은혜로운 약속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생각해보기	
1	<p>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p> <p>(1) 1-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해주시심.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케 하실 것이나, 악한 무화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본토에 머물러 있는 자와 애굽 땅으로 간 자들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심</p> <p>(2)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보다 철저히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p>
핵심 단어	5절. 좋은 무화과같이. 하나님께서 포로 된 백성들을 회복시키사 자신과 교제케 하신다는 의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 통일 찬송가 50장)
통독	예레미야 25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임을 선언하고, 이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는 바벨론 자체도 심판당리라는 사실과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과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14절)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중반부(15-29절) 그리고 하나님의 전우주적 심판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 후반부(30-38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바벨론 포로 예언</p> <p>(1) 1-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의 종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으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킴. 하나님의 지속적인 회개 권면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처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함</p> <p>(2) 12-38절: 유다를 심판한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징계 기간 70년이 찰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함</p> <p>(3)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를 보응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고난을 담대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있고,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p>
핵심 단어	14절. 보응하리라. '완전하다, 건전하다'는 뜻으로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 통일 찬송가 9장)
통독	예레미야 26장
본문 내용	본장은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레미야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본장은 성전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7절)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고소 및 예레미야의 변명을 진술하고 있는 중반부(8-15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재판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16-24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성전 설교의 결과</p> <p>(1) 1-7절: 렘7:1-15에 언급된 성전 설교와 동일한 내용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에게 전하게 한 예언의 내용(악한 길에서 떠나면 재앙을 돌이키실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세계 열방의 저춧거리가 되게 함)을 성전 뜰에서 가감 없이 전하도록 명하심.</p> <p>(2) 8-24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종교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살해 위협을 하며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선포한 죄, 성전 모독죄, 유언비어 유포죄 등으로 유다 방백들에게 고발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재차 선포하였고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정치 지도자들과 장로 및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호함.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선포한 우리야는 순교하였고 아히감의 보호로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하게 됨</p> <p>(3) 세상의 위협 앞에서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거나 인기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 감없이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p>
핵심 단어	13절. 고치고. '좋다, 훌륭하다, 만족하다'는 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바른길을 가고 바른 행동을 행하라는 의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